

대학생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이 주 희¹⁾

최 명 선²⁾

박 희 현³⁾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에게 교양강좌를 통해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자기능력지각에 어떠한 교육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이주희 등(200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지침서를 토대로 사용되었다. D대학의 신입생 1,453명을 대상으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와 이명숙(1994)이 변안한 자기능력 지각 척도를 각각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쌍(pair)을 이루지 않거나 누락된 것을 제외한 815쌍의 설문지에 대해 paired t-test를 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자아정체감에 있어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대학생과 남녀 대학생 모두가 주도성과 친밀성에 있어 인성함양 교양교육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또한 자기능력지각에 있어서도 전체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의 학업자기능력지각과 사회능력지각에 있어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따라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해 실시한 결과 대학생들에게 있어 자아정체감의 주요한 영역인 주도성과 친밀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대학생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학업 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대학생, 인성 교육 프로그램, 자아정체감, 자기능력지각

* 본 논문은 2008년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심포지엄 발표 논문을 확장한 것임.

1)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3)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E-mail : gpark25@hanmail.net)

I. 서 론

대학에 입학하면서 신입생들은 개개인의 소양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기회가 많아지며, 종교, 가치관, 인생관, 정치적 견해 그리고 사회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극들은 대학생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한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주요문제는 학업 이외 이성교제, 교우관계, 부모로부터의 독립, 진로문제 등을 들 수 있다(장동원, 1999). 또한 많은 대학생들은 중고교시절을 거치면서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학업의 거둬진 실패로 인해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과 좌절로 열등의식과 자녀수 감소에 따른 과잉보호로 자율성 및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에 대한 소극적 태도, 학과에 대한 소속감 저하, 전공분야에 대한 낮은 학업성취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나아가서 대학에서의 중도탈락과 취업 시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이영애, 2006). 이렇게 대학 신입생들에게 닥친 발달과업들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변화는 어려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으로 하여금 교양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만들고 그 내용으로 인성 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대학의 역할은 학생에게 단순한 사실적 정보와 전공 지식만을 전달하는데 있지 않다.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살아갈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지혜

와 결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갖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재능이나 꿈,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교육활동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대학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강화된 인성교육을 통하여 가정, 직장과 사회에서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2004)에 따르면 대학교육에 대한 기업 CEO의 의식 조사 연구에서 직원들의 인성관에 대한 대학 교육 효과 평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들보다 낮은 점수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성관에 대한 대학 교육 효과의 저평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국경제인 연합회(2004)에 의하면, 기업들이 신입직원 교육 시 가장 중요시 하는 사항은 인성·태도(44%), 의식·기업문화(22%), 업무관련 지식·기술(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원의 인성 및 태도가 다른 항목들보다 더 우위에 두고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장과 사회에서 적응적인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건전하고 성숙한 인성 특성에 있어 Allport (1961)는 자아감의 확장, 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정서적인 안정감, 현실적 지각, 과업에의 몰두, 자아의 객관화, 일관된 생의 철학을 들었다. 이주희 등(2008)은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성과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갖는 인성 교육의 내용 구성을 위해 ‘기업의 적응적인 직원의 인성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하위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 인성 교육의 내용은 자기탐색과 대인관계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 하위 주제로 자기탐색에 있어서는 ‘자기이해’, ‘자기정서탐색’, ‘자기 선택과 책임’, ‘가치관 명료화’를 제시하고 대인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자기소개’, ‘자기표현’, ‘타인이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인성 교육은 자기관리와 자기 계발 능력을 함양하며 올바른 가치관과 의사소통 등을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교육학회(1998)는 인성교육의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신의 존중과 수용, 자기통제 및 조절 능력의 함양, 올바른 현실감각의 배양, 공감적 이해 능력과 타인 존중의 자세 함양 등을 들었다. 이영애(2006)는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한 것, 올바른 가치관 발달을 위한 것, 긍정적 자기수용, 목적의식과 자율성의 발달을 위한 것을 중심으로 기존의 실제적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인성 교육의 내용을 구성한 바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 내용을 종합하여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면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기조절과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인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변인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보여주는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효용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자기능력 지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정확한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목적을 나타내는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가치로운 자기 인식과 자기존중감을 보여주는 긍정적 자기능력 평가에 대한 요소가 인

성 교육내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으로서, 이를 확립하는 것이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인식이 12세 전후의 사춘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적 환경의 영향으로 대학생 시기에 가장 큰 자아정체감의 변화를 겪게 된다(김희진, 2001; 신정혜, 2003). 대학입시를 위해 억압된 청소년기를 보낸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생활을 통해 심리적, 성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여 새로운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김선애, 연진영, 1989). 이들은 졸업 후 성인기에 부과될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시도함으로써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들이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 확립과 혼미라는 양극의 갈등 속에서 자아구조와 재통합을 시도하는 시기라고 할 것이다(김희진, 2001). 따라서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키는 일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영애(2006)는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교육의 현실은 학생들로 하여금 인간의 삶의 다양한 측면과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가치관과 태도, 신념 및 능력을 탐색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검토하고 새로운 삶의 철학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정

체감의 혼란과 좌절, 대학생활에 대한 무기력으로 초래하여 대학 중도 탈락을 이끄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적응적인 인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은 그 교육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인성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기탐색과 대인관계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개념 중 자아개념이 있다. 자아개념은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다양한 자기평가적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Harter(1982)는 전반적인 자기존중감과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자기능력의 지각을 구분하고 자기존중감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부여하는 총체적 가치’로서, 학업능력, 사회능력, 운동능력, 품행 및 외모 등의 세부적인 자기평가 영역을 포괄하는 상위의 자기평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능력은 심리사회적 효능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성 교육에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얽매어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그들의 인성형성기를 보내고 있다(허정철, 2004). 이러한 폐쇄적인 교육환경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자아정체감 지체와 혼란을 가져오고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는데 있어 실패를 초래한다. 따라서 교육환경에 변화를 주는 대학의 자아정체감을

형성 및 긍정적 자기평가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영애(2006)는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성을 형성함으로 대학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양혜란(2006), 전제아(2005), 최용학(2002) 등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논하며 교양교육과정에서의 인성교육을 논하고 있으며, 인성교육의 방향 및 범주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송명자와 이현림(2008)이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강의와 소집단훈련 실습을 겸한 방법으로 그 방식과 내용 면에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와 인간관계에 있어 효과성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비전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양교육과정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논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또한 아직까지 대학생들에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교양 교육과정을 통하여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우리 대학생들이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에 대해 이해와 혼란 및 갈등에 주제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고 사례를 통한 토론 및 역할극과 집단상담 등에 대한 형태를 접목하여 사회 적응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년기인 이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자기능력 지각에 어떠한 교육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1. 성에 따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2. 성에 따라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능력 지각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D대학교 2008학년도 전체 신입생이다.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1학기 교양강좌를 통해 신입생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설문지 1453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배부된 설문지 중 사전 질문지 1216부와 사후 질문지 1009부가 회수되었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결석을 하거나 쌍(pair)을 이루지 않고 응답이 미흡하거나 누락된 것을 모두 제외하고 815쌍만의 설문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전공계열에 있어 이공계열이 90명, 의학계열 86명, 인문사회계열 359명, 보건복지계열이 280명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398명, 여학생이 417명이었다. 연령은 만18세가 332명, 만19세가 411명, 만 20~24세가 54명, 만 25~

29세가 18명이었다.

2. 방법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본 연구에서 실시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이주희 등(2008)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 지침서를 토대로 사용되었다. 본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설계에 앞서 선행연구 및 적응적인 인성특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방향 및 구성 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상담전공 대학 교수 4인으로 문헌고찰과 기초연구를 통해 설정된 하위항목에 따라 프로그램의 각 하위 목표를 정하였다. 목표설정 후 이론적 기초 부분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나뉘 그 내용을 구성하였고, 실제 예비 프로그램 구성 후 10회 이상의 개발자 간 논의과정을 거쳤고, 실제 현장에서의 청소년 및 대학생 집단 활동 지도자들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자 하였다. 예비 프로그램 적용 후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인성 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실시방법

이주희 등(2008)이 개발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의 하위주제는 인성함양의 의미, 자기소개 및 자기이해, 자기표현, 자기개방 및 자기주장, 정서적 안정, 가치관 명료화 그리고 대인관계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등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집단 활동 시 집단의 크기는 20~30명이 한 분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교양강좌를 통해 주당 3시간씩 51분반에 실시되었고 각 분반에 25~30명 내외의 대학생이 구성원으로 참여되었다. 프로그램의 교육 및 지도자는 상담관련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집단상담 실시 및 지도경력이

있는 자로 프로그램의 실시 전에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본 프로그램의 개요 및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한 1회 3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공통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지침서를 가지고 실시되었으며, 실사자의 주 교육내용은 각 세부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과 하위

표 1.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내용

회기	주제	기초지식강의 (50분)	활동프로그램 (100분)
1	프로그램 개요 인성함양의 의미	· 인성함양에 대한 이해 · 인성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 프로그램 개요 및 진행방법 소개
2-3	자기소개 자기이해	· 자기소개의 의미와 내용 · 효과적인 자기소개방법 · 자기이해의 중요성	· 효과적인 자기 소개 연습 - 긍정적 첫인상 톨링 페이퍼, 자기 홍보하기 · 자신의 장점과 단점 알기 · 자신의 단점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피드백 받기
4	자기표현	· 자기표현의 의미와 중요성	· 자기표현훈련-판토마임, 불만릴레이, 자기감정표현훈련
5-6	자기개방 자기주장	· 자기개방에 대한 이해 · 자기개방 모형 · 자기개방과 인간관계 · 자기주장의 개념 및 필요성 · 주장행동의 유형	· 자기개방 게임 · 신분마크 활동 · 자기주장 훈련 - 자기주장 상황극 만들기
7	정서적 안정: 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방법	· 자신의 스트레스 점검 · 스트레스 상황 검토 ·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 방법
8-10	가치관 명료화	· 가치관의 의미 ·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치관 명료화를 위한 기준: 선택, 평가, 행동 · 인생의 계획, 목표설정, 기호와 능력의 평가	· 가치관 경매 · 선택과 결정 연습 ·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 정하기
11-13	대인관계증진: 의사소통훈련	· 의사소통의 의미 · 의사소통의 유형 · 의사소통의 방해요소 · 나전달법 · 효과적인 대화기술	· 경청훈련 · 효과적인 대화기술 실습 I - 한쌍의 대화, 앵무새대화 · 효과적인 대화기술 실습 II - 긍정대화, 공감대화기술

주제 간 연관성에 대해 먼저 교육하고 실제 활동 프로그램의 시연을 통한 실시 방법, 참여 동기가 부족한 참가자에 대한 참여유도 방법 그리고 활동 시 유의점 등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7회기 실시 후 프로그램 실시자들에 대해 전체 모임을 실시하고 중간 점검 작업이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13주 동안 실시되었고, 매주 각 주제에 따른 구성시간은 필요한 기초지식을 강의하는데 있어 50분과 구조화된 집단활동 프로그램 100분으로 구성되었다. 집단활동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직접 적을 수 있는 150페이지 분량의 워크북 형식의 교재를 사용하였고, 교재에는 매 회기의 활동목표와 실제 프로그램이 도입, 전개, 마무리 순의 진행내용, 준비물과 유의점 그리고 각 회기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작성하는 후기 등이 제시되어있다. 실제 활동 프로그램은 각 하위내용에 따라 개별작업, 2인 혹은 3인 1조 작업, 8~10인의 소집단 작업, 전체 토론 작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장소는 대학의 일반 강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소집단 및 전체 활동 시에는 쉬는 시간에 원형식의 의자배치가 이뤄지게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있어 각 회기의 개괄적인 구성내용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측정도구

자아정체감.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2003)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는 총 60문항으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과 친밀성

의 6개의 하위요인과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있다. 주체성은 자기의 역할, 환경에 영향을 주는 느낌의 정도이며, 자기수용성은 자신의 능력, 재능에 대한 신뢰의 정도이고, 미래확신성은 시간적 경과에 대한 희망의 정도를 의미한다. 목표지향성은 과업을 수행,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이고 주도성은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하고 실행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이며, 친밀성은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노출정도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의 종류를 의미한다. 자아정체감 검사는 5점(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 매우 많이 해당된다)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에 대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및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사전 검사 시 .86, .80, .81, .89, .78, .85, .84로 이었으며, 사후 검사 시에는 .87, .78, .83, .87, .79, .85, .83로 나타났다.

자기능력지각. 대학생들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검증하는 자기능력지각의 측정을 위해 Harter(1982)가 개발하고 이명숙(1994)이 번안한 자기능력 지각 척도를 각각 실시하였다. 자기능력지각 척도는 6개의 하위영역인 학업능력지각, 사회능력지각, 운동능력지각, 신체적 외모지각, 자기행동지각, 자기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위 영역들을 스스로 얼마나 지각하고 있는지를 보고하게 하는 것으로 총 36문항이고 각 하위영역별로 6문항씩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구조화된 대안방식을 취하는데

4점 척도 점수로 표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해 먼저 응답자가 A와 B 유형 중 어느 유형이 자신과 더 유사한 지 판단하게 한 다음, 다시 한 번 ‘나와 정말 똑같다’와 ‘나와 비슷한 편이다’ 중에서 하나를 더 고르게 한다. 전체 및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사전 검사 시 .59, .52, .55, .64, .61, .54, .62이었으며, 사후 검사 시에는 .64, .58, .58, .68, .65, .52, .6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의 2008학년 1학기(3월 6일~6월 5일, 중간고사 기간 1주 제외) 동안 D대학교의 신입생 전수(약1600명)를 대상으로 교양필수 강좌를 통해 총 13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성함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기인 13회기를 마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및 사후 검사 질문지는 학생들에게 직접 배부하는 형식으로 해당분반의 담당교수가 직접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처치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SPSS 12.0을 사용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전체 대학생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청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에 있어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 내에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검사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의 평균을 가지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으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주도성($t=-5.54$, $p<.001$)과 친밀성($t=-4.76$, $p<.001$)은 인성함양 교양교육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표 2.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전체)

하위 변인	사전검사 (n=815)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n=815) 평균(표준편차)	t
주체성	3.64 (.62)	3.67 (.58)	-1.07
자기수용성	4.03 (.70)	4.02 (.62)	.63
미래확신성	3.78 (.83)	3.78 (.80)	.30
목표지향성	3.05 (.71)	3.06 (.70)	-.45
주도성	3.07 (.76)	3.28 (.75)	-5.54***
친밀성	3.18 (.83)	3.30 (.78)	-4.76***

*** $p < .001$

표 3.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 (남자)

하위 변인	사전검사 (n=398)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n=398) 평균(표준편차)	t
주체성	3.66 (.65)	3.70 (.60)	-1.50
자기수용성	4.03 (.70)	3.99 (.65)	1.58
미래확신성	3.75 (.83)	3.78 (.82)	-.78
목표지향성	3.11 (.71)	3.13 (.72)	-.58
주도성	3.13 (.75)	3.33 (.77)	-3.53***
친밀성	3.19 (.85)	3.40 (.79)	-3.88***

*** $p < .001$

표 4.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 (여자)

하위변인	사전검사 (n=417)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n=417) 평균(표준편차)	t
주체성	3.63 (.59)	3.63 (.56)	-.22
자기수용성	4.03 (.70)	4.06 (.59)	-.66
미래확신성	3.81 (.83)	3.78 (.80)	1.11
목표지향성	2.99 (.70)	2.99 (.68)	-.07
주도성	3.01 (.77)	3.14 (.73)	-4.17***
친밀성	3.18 (.81)	3.27 (.76)	-2.63**

** $p < .01$, *** $p < .001$

남자 대학생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한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 내에서 인성함양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검사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의 평균을 가지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으며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주도성($t=-3.53$, $p<.001$)과 친밀성($t=-3.88$, $p<.001$)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여자 대학생에 있어 자아정체감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한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 내에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검사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의 평균을

가지고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자기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주도성($t=-4.17$, $p<.001$)과 친밀성($t=-2.63$, $p<.01$)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2.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전체 대학생에 있어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기능의 효능성과 적절성을 보여주는 자기능력지각에 있어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 향상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 내에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검사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의 평균을 가지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으며 대학생의 자기능력지각 중 학업자기능력지각($t=-1.98$, $p<.05$)과 사회능력지각($t=-2.83$, $p<.01$)에 있어 인성함양

표 5.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전체)

하위 변인	사전검사 (n=815)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n=815) 평균(표준편차)	t
학업능력지각	2.01 (.53)	2.17 (.56)	-1.98*
사회능력지각	2.49 (.55)	2.55 (.56)	-2.83**
운동능력지각	2.46 (.63)	2.46 (.65)	.48
신체적외모지각	2.08 (.59)	2.04 (.59)	1.84
자기행동지각	2.74 (.48)	2.75 (.50)	-.27
자기존중감	2.75 (.56)	2.77 (.62)	-.77

* $p < .05$, ** $p < .01$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남자 대학생에 있어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한 향상이 있었는

표 6.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남자)

하위 변인	사전검사 (n=398)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n=398) 평균(표준편차)	t
학업능력지각	2.13 (.53)	2.20 (.57)	-2.70**
사회능력지각	2.46 (.56)	2.53 (.57)	-2.24*
운동능력지각	2.58 (.58)	2.57 (.61)	.40
신체적외모지각	2.10 (.59)	2.08 (.59)	.54
자기행동지각	2.68 (.48)	2.67 (.50)	-.28
자기존중감	2.72 (.56)	2.74 (.62)	-.59

* $p < .05$, ** $p < .01$

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 내에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검사와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의 평균을 가지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다. 자기능력지각의 하위영역 중 학업능력지각($t=-2.70$, $p<.01$)과 사회능력지각($t=-2.24$, $p<.05$)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여자 대학생에 있어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의 비교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한 향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조건 내에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검사와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검사의 평균을 가지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 전체에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 실시하기 전에 비하여 실시한 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자기능력지각의 사전·사후 검사 집단 내 변화(여자)

하위 변인	사전검사 (n=417) 평균(표준편차)	사후검사 (n=417) 평균(표준편차)	t
학업능력지각	2.14 (.54)	2.14 (.55)	-.03
사회능력지각	2.52 (.54)	2.56 (.55)	-1.65
운동능력지각	2.36 (.65)	2.35 (.66)	.46
신체적외모지각	2.06 (.58)	2.01 (.58)	1.97
자기행동지각	2.81 (.47)	2.83 (.49)	-.74
자기존중감	2.78 (.55)	2.79 (.61)	-.50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대학 교양강좌를 통해 실시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건강한 품성과 가치관을 지니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대학 신입생에게 교양강좌를 통해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고,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자기능력지각에 어떠한 교육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해 실시한 결과 전체 및 남녀 대학생들에게 있어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을 보여주는 주도성의 증가와 집단 속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노출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친밀성 등의 자아정체감의 주요한 영역들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송명자와 이현림(2008)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인간관계 문제를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시키고 나아가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교육 강의와 집단상담 형태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는데, 교육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해하여 훈련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부여하게

하고, 소집단훈련 경험을 통하여 자기 통찰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인간관계 목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김동원 등(2004)과 주은선과 현수경(2005)의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강의방식과 집단상담을 동시에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증진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중 주도성과 친밀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교육 프로그램의 자기이해 및 적극적인 자기개방과 자기주장 활동들이 주도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친밀성 향상에 효과를 나타낸 것은 본 교육 프로그램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훈련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형득(1982)과 Corey와 Corey(2006)는 의사소통훈련이 강화된 집단활동 프로그램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생각을 관찰하고 더 잘 깨닫게 되었고, 대인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Tooselad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집단활동이 다른 사람과 유사성을 인식하여 자신만이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점은 자신의 문제가 보편적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세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대응책과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영애(2006)의 연구에서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자기이해를 증진시켜,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성격 등을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송명자와 이현림(2008)은 교양강좌를 통한 인간관계훈련 집단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단에서 자기이해와 자기개방의 경험이 개인의 자기효능감, 정서적 안정성, 자아정체감과 같은 심리적 성숙도를 향상시킨다는 결과와 서봉연과 황상민(1999)이 인간관계 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적 유능감, 의사소통 능력, 학교생활 적응력, 대인관계 친화력, 자기관리 능력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 허정철(2004)은 청소년의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이러한 전인교육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대학생과 남자 대학생이 자신에 대해 지각하는 학업능력과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있어 먼저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의 긍정적인 향상은 이영애(2006)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생들에게 학업과 진로에 대한 동기유발의 기대효과를 가진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박은아(1993)의 연구에서 교우관계가 좋은 집단 일수록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대인관계를 돕고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활동들은 학업능력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송명자(1994)가 친구들과 보

내는 시간이 많은 청년들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이에 맞는 지능과 흥미를 발달시킨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와 연관 지어 볼 때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재능과 능력을 계발하려는 학습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및 자기개방과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능력지각에 긍정적인 평가를 도울 수 있었던 결과와 관련하여 허정철(2004)의 연구에서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Mahoney(1991)와 Guernsey(1991), 이현림(2007) 등이 제시한 연구 결과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집단활동 속에서 경험한 자기이해 및 대인관계 증진 경험들 즉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자기 통찰을 도울 수 있는 작업들과 기초적인 의사소통 기법 강의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전에 비하여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고 했다. 또한 훈련을 마친 후에도 보다 개방적이 되고, 자발적이 되며 자신의 느낌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고 이전에 비해 대인관계에서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인성 교육 활동들이 대학생들에게 사회능력지각에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에 있어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자아정체감의 주요 영역 중 집단에서 참여자로서 자신을 노출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친밀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서 대인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성함양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과 그 내용 면에서 대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타인수용을 돕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지능력과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 등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학업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의 교양강좌로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기정체감과 긍정적 자기평가에 부분적으로 효과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친밀성과 자기능력 지각의 하위 내용 중 사회적 능력 지각에 유의한 향상을 보인 점은 인성함양 프로그램이 적응적인 인간관계를 돕고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더욱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관계에서 적응적인 인성을 길러내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하는 바 교양강좌를 통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중 주도성과

친밀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변인들에 대해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 유의한 감소는 아니지만 자기수용성과 미래 확신성에 있어 평균값이 감소한 것은 본 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정체감의 전반적인 영역의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능력 지각에 있어서도 운동능력지각과 신체적 외모 지각에 있어서 유의한 감소는 아니지만 평균값이 감소한 것 또한 논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인간관계의 적응과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사회성 및 친밀성 증진에 관련한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지각하는 신체적인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없었고,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인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보이지 않은 변인에 있어서는 추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으로 프로그램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점과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좀 더 나은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교육 프로그램이 교양강좌를 통하여 신입생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되다보니 통제집단을 구성하여 그 효과 비교할 수 없었던 점은 연구설계에 있어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입생 전수에게 학기 중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프로그램 전, 후에 실시되는 사전·사후 검사

외에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있어 자기정체감과 자기능력 지각의 두 가지 변인에 그쳤다. 따라서 의사소통능력, 도덕성, 가치관 등 인성의 다양한 측면들에 있어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에 대한 기업 CEO의 인식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동원, 김정희, 김지현 (2004).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의 효과 개관. 상담학연구, 5(4), 1035-1049.
- 김선애, 연진영 (198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 변인. 아동학회지, 10(2), 45-60.
-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 369-393.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은아 (1993). 가족구조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적응에 따른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 황상민 (1999). 서울대생의 심리사회성숙성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8(1), 1-31.
- 송명자 (1994). 한국 중·고·대학생 심리, 사회적 성숙성 진단 및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53-73.
- 송명자, 이현림 (2008). 대학의 교양강좌를 이용한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69-291.
- 신정혜 (200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내적통제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혜란 (2006). 대학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1), 1-28.
- 이명숙 (1994). 기질 및 또래 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 패널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애 (2006). 대학 중도탈락자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서정신과학, 9(1), 95-104.
- 이주희, 최명선, 류진아, 박희현 (2008). 광주·전남 기업의 적응적인 직원 인성 특성 분석: 인성함양 교과 매뉴얼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동신대학교논문집, 17, 363-384.
- 이주희, 최명선, 류진아, 박희현 (2008). 인성함양. 전남: 동신대학교 출판부.
- 이현림 (2007). 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이형득 (1982).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서울: 중앙정성출판사.
- 장동원 (1999). 대학생의 인성교육 필요성과 대학생활 지도방안. 인문과학연구, 7(1), 1-8.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및 이의 실현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

- 연구보고서.
- 전제아 (2005).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과정 사례분석. *인간연구*, 9, 5-31.
- 주은선, 현수경 (2005). 대학생들의 인간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학생생활연구*, 21, 23-41.
- 최용학 (2002).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의 의의와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평택대학교를 중심으로. *평택대학교 논문집*. 887-908.
- 한국교육학회 (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 허정철 (2004). 전인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아정체감 형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241-269.
- Allport, G.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 Winston.
- Corey, M. S., & Corey, G. (2006). *Groups: process and practice*(7th ed.). Pacific Grove, CA: Brooks/ Cole.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 Guerney, B. G. (1991).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 training program for therapy, program prevention, and enrich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1), 87-97.
- Mahoney, M. J. (1991). *Human change process*. NY: Basic Books.
- Tooselad, R. W., & Rivas, R. E. (1995). *An introduction of group work practice*. Boston: Allyn & Bacon.
- 1 차원고접수 : 2009. 04. 15.
수정원고접수 : 2009. 06. 05.
최종게재결정 : 2009. 06. 12.

The Effec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Lee, Joohui

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Choi, Myungseo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Park, Huihyu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used in this study was developed by Lee et al.(2008). The effec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ere analyzed by utilizing the Korean ego-identity scale developed by Park(2003) and the perceived self-competence scale adapted by Lee(1994). The pre-test and post-test of each was conducted on 1,453 freshmen in D university during a 13 week period. 815 pairs of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paired t-Test. For ego-identity, the results showed that subjectivity and intimacy were improv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For the item concerning perceived self-competence, the levels of scholastic competence and social competence were improved significantly in terms of the total number of students and the male students. These results could lead to the conclusion that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can help improve ego-identity and positively perceived self-competence.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 education program, ego-identity, perceived self-competence